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의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황인구
인쇄인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967-8133 FAX:965-0643

2001년 10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47호

생약 생산기반 뿌리채 “흔들”

식품용 반입량 갈수록 증가 폐해도 날로 심각 불법약재 유통감시 소홀, 정부대책 제자리걸음

국내 생약생산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불경기로 매기까지 끊어지는데다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입약재의 불법 유통 폐해는 생산농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국내 주 소비품목이면서 동시에 주생산품목인 황기, 당귀, 작약, 천궁 등의 경우에도 식품용으로 반입되는 수입약재량은 국내 연 생산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부산 식물검역소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부산항을 통해 식품원료로 반입된 물량은 황기 1,227톤, 당귀 247톤, 천궁 726톤, 작약 491톤으로 총 2,691톤(8월 17일 현재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국산 황기 총생산량이 1,835톤임을 감안할때 상반기 식품원료로, 그것도 부산항을 통한 반입량만 1,227톤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실제로 군산항과 인천항을 통

해 반입된 물량까지를 합하면 황기, 당귀, 작약, 천궁 등 주생산품목의 경우 식품용 반입량은 5~6천톤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라북도 이승엽씨(58)는 “최근 수입 작약이 생것으로 수백톤이 반입돼와 국내에서 국산과 흡사한 형태로 가공돼 근당(6백g 기준) 1천2백~1천5백원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햇것 출하가 시작될 시기임에도 이들 수입약재 때문에 지금 산지에서는 농민들이 햇것 작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식품용 수입약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니 수입약재의 홍수속에서 국산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동안 수없이 거론돼왔던

중국의 WTO가입이 이제 현실화된 마당에 식품용 수입약재의 반입 제한에 어차피 한계가 있다면 그 속에서 수입산과 섞이지 않고 국산만이라도 제값받고 유통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

그러나 이에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다분히 형식적인 수준의 단속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며 그마저도 체벌 적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발된다 하더라도 미미한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달 1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김찬우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에서 할 일을 농민이 대신 하고 있고, 잘못된 감시체제로 한약재배 농민들이 의욕을 상실해

정부에 대한 불신감마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약청은 효율적인 지도단속 대책을 마련하여 불법한약재의 유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일천공의 국내 생산량은 1,297톤이고, 원료의약품으로 소비되는 양은 900톤에 달하는데 올해에만 식품원료로 1,927톤(232만달러)이 수입돼 이중 일부가 의약품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일천공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직접 금산, 영천, 부산구포, 서울경동시장에서 불법 유통 실태를 조사해 식약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청의 불법한약재 유통 감시가 소홀한 것으

로 지적됐다.

경북 영양의 박철규씨는 “식품용 수입약재 불법유통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했지만 적용할 만한 마땅한 체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유아무야 넘어가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약 시장에서 수입산을 국산과 적당히 섞어 국산으로 유통시키는 일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린지 오래다. 예를들어 국산당귀에 수입당귀미를 섞어 단가를 떨어뜨린후 실제 국산당귀보다 1~2천원 저렴한 값에 국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산한약재의 급작스런 하락세 배경에는 이같은 요인이 작용한 때문이다.

시장에서 한약재 수출입을 하는 한 상인은 “요즘같은 불경기 속에서 국산 매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국산 점유율은 겨우 1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정희〉

우리품종 전시회 개최

국내에서 육성한 우량품종을 기존품종과 비교 전시하여 그 우수성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우리품종전시회가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열린다.

국립종자관리소가 주최하고 농림부와 농진청, 농협중앙회, 한국생약협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두 번째. 유전자원과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추세속에서 종자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교류 및 관련종사자 자긍심 고취는 물론이고 개인육종가 발굴 등 품종육종기반 확대를 위한 것이다.

총 70여개 업체 및 기관에서 참여하는 이번 품종전시회에는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약용작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농진청과 특허시험장들에서도 참여, 최근 연구개발 동향과 국내 품종 육종기술 및 세계육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생약협회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 국산한약재의 표본·건재·가공식품 등을 전시, 국산 약재의 품질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중국·대만 WTO 가입협상 타결

정회원국 활동은 올연말 또는 내년초 될듯

중국과 대만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이 공식 타결됐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달 17일 중국과 다른 주요 무역상대국들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조건에 관해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18일에는 대만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작업반 회의를 열어 대만의 가입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추진함으로써 대만의 가입협상도 타결됐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는 중국과 대

만의 가입협상이 완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의 동시 가입신청을 승인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정식회원국 지위는 가입승인에 이어 해당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기탁한 후 30일이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이 정회원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



제21회 금산인삼축제 개최

문화관광부 선정 전국 4대 향토문화축제 가운데 하나인 제21회 금산인삼축제가 9월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개최됐다.

‘건강·감동·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인삼축제 기간에는 국제인삼교역전 및 인삼세계화 심포지엄(17-19일)이 열렸으며 인삼캐기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한 체험코너와 금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공연 등으로 짜여졌다.

체험코너의 경우 한방진맥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

해주는 ‘금산인삼 동의보감 ‘한방무료진료’ 코너와 관광객들이 인삼밭에서 인삼을 직접 캐고 살 수 있는 인삼캐기, 인삼 깎기, 인삼밭 짜기, 인삼 엮기 행사 등이 축제기간 군북면 등 금산군 일원에서 열렸다.

먹거리도 풍성해 인삼어죽과 인삼강정, 인삼김치 등 50여가지의 인삼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금산에서 나는 250여가지의 약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약초전시회도 관심을 끌었다.

지면안내

- 김동태 신임 농림부장관 프로필 2면
- 특집/중국 약초재배지를 가다 ㉠ 3면
- 유통시세정보 4면
- 이달의 농사정보 5면